
열하일기

새로운 세상을 꿈꾸다



배봉기 글 | 이부록 그림 | 152쪽

■ 5, 6학년 중심 학년군

사회: 새로운 문물을 받아들이기 시작한 조선의 경제, 정치, 사회, 문화적 배경에 대해 이해한다. 조선의 전통을 고수하려는 세력과 새로운 문물을 받아들여야 하는 세력 간의 마찰과 조선의 개혁 과정에 대해 알아본다.



18세기 조선은 전과 달리 아주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었다. 이때 실학이 일어났다. 실학(實學 열매실·배울학)은 말 그대로 단지 배우고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의 삶에 도움이 되고 쓰이는 것을 추구하는 학문이었다. 이런 학문을 하는 사람들을 실학자라 한다. 《열하일기》를 쓴 연암 박지원도 실학자였고, 실학자 가운데서도 북학파였다. 북학은 북쪽의 선진 문화와 학문을 배우자는 말이다. 여기서 북쪽의 선진 문물은 청나라를 말한다. 박지원은 그의 나이 44살 때 청나라 연경과 열하를 다녀와서 여행기를 쓴다.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열하일기》이다.

[학습 목표]

18세기 조선 사회는 여러 가지 변화를 맞게 된다. 상업의 발달로 서서히 자본주의 싹이 움트고, 부를 축적한 평민들이 양반 신분을 사기도 하면서 견고했던 신분제도에 균열이 생겼다. 또한 서민 문화도 발달하고, 실학이 발생하기도 했다.

한편 18세기 무렵 청나라는 세계적인 대제국이었다. 수도 연경은 지금의 뉴욕이나 파리처럼 발달했다. 조선 후기 실학자 박지원은 늘 가슴 속에 커다란 물음표를 간직하고 있었다. 압록강 너머 저 거대한 청나라는 어떤 나라일까? 저 대륙의 자연과 도시는 어떤 모습일까? 마침내 기회가 찾아왔다. 1780년 여름, 연암은 압록강을 건너 청나라로 가게 된다. 《열하일기》는 연암이 청나라를 다녀온 뒤 쓴 여행기이다. 연암은 청나라 여행을 통해 조선의 현실을 바로 보고 싶었다. 이 책은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쉽게 읽을 수 있게 풀어쓴 《열하일기》이다. 《열하일기》를 통해 박지원이 꿈꿨던 새로운 조선 사회를 느껴보고, 실제로 급변하고 있던 조선 사회의 사회·문화·역사를 이해해 본다.

- ▶ 실학이란 어떤 학문을 말하는지 알아보자.
- ▶ 북학과 북학파에 대해 알아보자.
- ▶ 박지원이 청나라 연경과 열하에 가게 된 내력을 인터넷에서 더 자세히 찾아보자.
- ▶ 한양에서 열하까지 3천 리, 왕복 6천 리였다. 인터넷에서 이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찾아보자. 그리고 이때 축하 사신단이 거쳐 갔던 곳을 지도에서 찾아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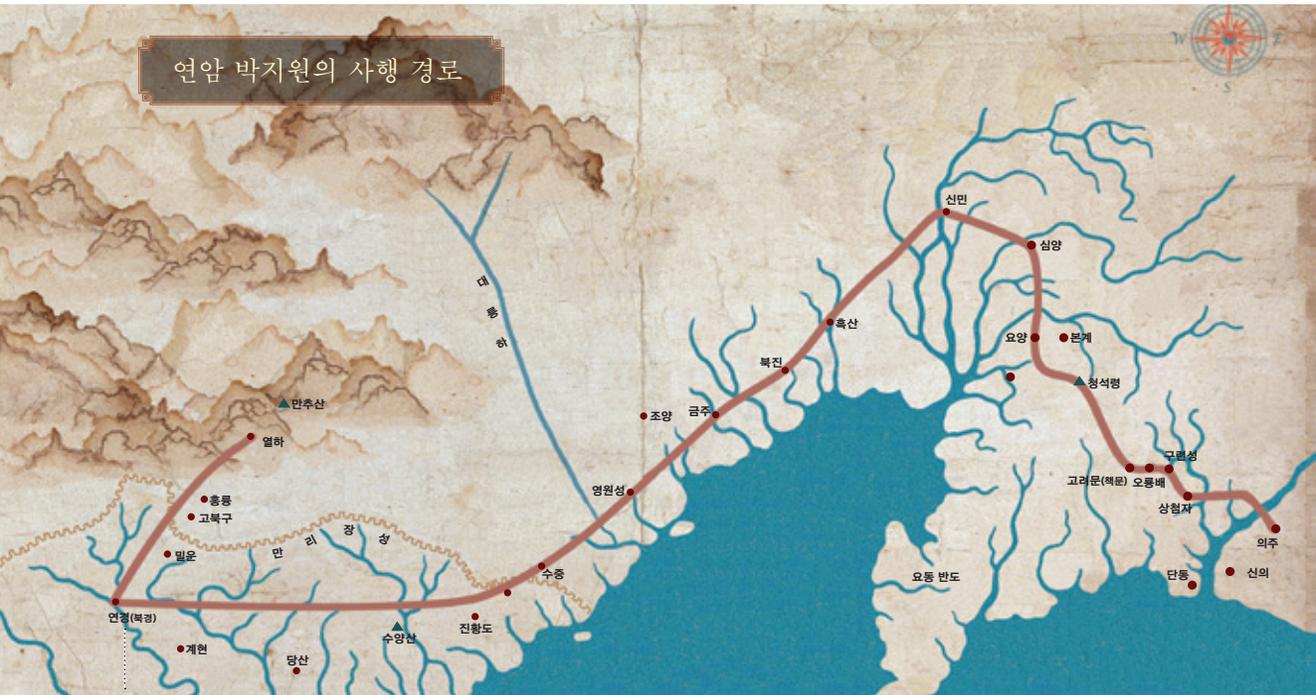




▶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갈 말을 찾아 써 보세요.

● 박지원은 식구들과 함께 개성에서 30리 정도 떨어진 연암(燕巖 제비연 · 바위암) 골짜기로 들어간다. 여기서 ‘연암’은 말 그대로 ()라는 뜻이다. 박지원의 호 연암은 바로 이 골짜기 이름에서 딴 것이다. (책 43쪽 참조)

● 열하는 연경에서 동북쪽으로 230킬로미터쯤 떨어진 무열하 서쪽 지역으로, 둘레에 온천이 많아 한겨울에도 강물이 얼지 않았다. 그래서 열하(熱河 더울열 · 강이름하)라 불렸다. 건륭제는 이곳에 여름 궁전을 짓고 해마다 여름이 오면 이곳에 와 머물렀다. 열하는 연경 못지않게 발전했고 정치와 문화의 중심지가 되었다. 여름이면 청나라 황제를 만나려고 외국()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박지원은 연경과 열하에서 본 청나라 문화를 생생하게 기록으로 남겼다. 이 책이 바로 《열하일기》이다. (책 60쪽 참조)



책을 읽고 난 후 내용 이해를 위한 질문



➔ 박지원은 청나라 시골 마을에 갔을 때 성을 보고 같이 갔던 정 진사에게 묻는다. 이 대목을 같이 읽어 보고 서로 자기 생각을 말해 보자.

정 진사에게 물었다.

“이 나라의 성 쌓는 방식이 어떻게 보이는가?”

정 진사가 대답했다.

“여기서는 벽돌로 쌓는데, 우리처럼 돌로 쌓는 것만 못하군요.”

내가 말했다.

“자네가 뭘 모르고 하는 말일세. 우리 조선은 성을 돌로 쌓는데, 이것은 썩 좋은 방법이 못 되네. 벽돌은 가마에서 구워 내니 만 개라도 모양이 똑같지 않은가. 또 성 쌓는 곳 가까운 데서 구워 내니 따로 운반할 필요도 없고 반듯한 벽돌로 척척 쌓아 올리니 쌓기는 또 얼마나 쉽겠는가.

그뿐이 아니네. 돌로 쌓으려면 이만저만 힘든 게 아니네. 산에서 힘들게 돌을 가져와야지, 또 그걸 애써 다듬어야지, 이런 모든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 않은가. 모양이 똑같지 않으니 쌓기는 또 얼마나 힘들겠는가.”

● 박지원은에게는 청나라 성 벽돌의 장점이 보였는데, 왜 정 진사에게는 그것이 보이지 않았을까, 하는 점을 토론해 본다. 학생 스스로 정 진사가 되어 왜 박지원 같은 생각을 하지 않았는지 헤아려 발표해 본다. 또한 나라면 어느 쪽이 더 맞다고 생각하는지 발표해 본다.

● 우리 학급 혹은 학교에서 일어나는 일 가운데 이렇게 바꾸면 좀더 효율적이겠다 싶은 것이 있는지 생각해 본다. 지금은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나는 이렇게 바꾸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게 있으면 발표하여 친구들과 토론해 본다.

➔ 책을 다 읽고 나서 아래의 내용을 인터넷에서 더 찾아보자.

- 연경과 열하는 지금 중국의 어디일까?
- 박지원이 묻어서 간 축하 사신단의 규모는 얼마나 되었을까? <책 62쪽 참조>
- 조선에서 청나라로, 청나라에서 다시 조선으로 올 때 그기간은 얼마나 걸렸을까? <책 78쪽 참조>
- 조선 후기 북학파는 앞선 문물을 받아들여 백성들의 살림살이를 윤택하게 하자고 주장했다. 이것을 이용후생(利用厚生 이로율이·쓸용·두터울후·날생)이라 한다. 인터넷에서 '이용후생'을 찾아 그 뜻을 한번 더 정리해 보자.

➔ 박지원 단편소설 <호질>을 인터넷에서 찾아 같이 읽어 보고 연극으로 꾸며 무대에 올려 보자.

